

프로야구 주간 전망대

# ‘잔물’ KIA 마운드, NC·삼성 ‘불방망이’ 식힐까

### 주중 타율 1위 NC, 주말 천적 삼성과 일전...본격 시험무대

### 스틴슨 선발 스타트·김태영 1군 합류...“맞더라도 공격 야구”

‘평균 자책점 1.67’. 철벽 방어를 자랑하고 있는 ‘호랑이 군단’이 진짜 시험무대에 오른다. 셋별 문경천으로 6연승을 완성한 KIA 타이거즈가 타율 1위의 NC 다이노스와 천적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연승 잇기에 나선다. 앞서 페이스가 떨어졌던 SK 와이번스, 막내팀 kt 위즈와의 승부가 전개된 만큼 연승 과정에는 업그레이드된 실력 속 대진운도 있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승부가 기다린다. 지난 시즌 각각 5승11패, 4승12패로 열세를 기록했던 NC, 삼성과의 대결이다.

주중 안방에서 만나게 되는 NC는 최근 세 경기에서 30점을 뽑아내는 막강 화력을 과시하며 팀타율(0.333)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베대랑 이호준은 올 시즌에도 부담스러운 타자로 고향을 찾는다. 최근 두 경기에서 홈런을 날린 이호준은 0.476의 타율로 11타점을 쓸어들었으며 타선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NC의 무서운 화력을 넘으며 주말 대구에 가서 삼성을 상대해야 한다. 사자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호랑이었다. 지난 시즌에도 16번의 승부에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6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차	연속
1 KIA	6	6	0	0	0.0	6승
2 롯데	6	5	1	0	1.0	2승
3 NC	5	3	2	0	2.5	3승
4 삼성	7	4	3	0	2.5	2패
5 SK	6	3	3	0	3.0	2승
5 두산	6	3	3	0	3.0	3패
7 LG	7	3	4	0	3.5	2승
8 넥센	6	2	4	0	4.0	2패
9 한화	6	2	4	0	4.0	2패
10 KT	7	0	7	0	6.5	7패

서 겨우 4승을 챙기는데 그쳤다. ‘삼성 징크스’ 탈출은 KIA에게 주어진 큰 숙제 중 하나다. 올 시즌 최종 순위를 결정할 변수이기도 하다.

지난주 임준혁의 부상으로 신인 문경천이 선발전에 가세하며 마운드 로테이션에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 주는 변동 없이 선발진이 운영된다. 가장 먼저 선발승을 거뒀던 스티슨이 험난한 6연전의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번 주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를 책임진다.

마운드 보장은 있다. 지난 5일 1군 선수단에 합류한 ‘커브의 달인’ 김태영이 엔트리 등록을 앞두고 있다.

난적들을 만나게 됐지만 KIA 마운드의 공격적인 피칭은 계속된다. 김기태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부터 ‘맞더라도 공격적으로’를 투수진에 주문했다. 연습경기 9연 전패 속 103실점으로 신나게 얻어맞기도 했지만 김 감독은 “맞으면서 배운다”며 느긋한 모습이었다. 아직 6경기 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맞으면서 배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대진 투수 코치는 “감독님의 주문도 그렇고 맞더라도 초구, 2구에서부터 과감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투수들이 투몰이라는 생각으로 던지니까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고 있다. 맞으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 몸쪽 승부도 하게 되고, 투수들 스스로 피하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고 느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격적인 피칭을 이야기 할 것이다. 많은 투수들이 상대가 3할 타자라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7할을 잡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 7할을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위력을 되찾은 최희섭과 이범호 그리고 모범생 필까지, 타석과 마운드에서 공격성을 키운 KIA가 진짜 승부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엔트리 in 강정호

### 피츠버그 개막전 25인 로스터 합류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피츠버그의 개막전 25인 로스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피츠버그는 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펼쳐지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개막전에 뒀 25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클린트 허를 감독과 닐 헌팅턴 단장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강정호는 예상대로 25인 로스터에 합류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를 비롯해 페드로 알바레스, 코리 하트, 손 로드리게스, 조디 머서, 조시 해리스, 닐 워커 등 내야수 7명으로 올 시즌을 시작한다. 한국 KBO리그에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던 레다메스 리즈도 빅리그에 입성했다.

피츠버그는 25인 로스터 가운데 선발 투수 5명·불펜 투수 7명 등 총 12명을 투수에 할당했다.

선발진은 프란시스코 리리아노, 게릿 콜, A.J. 버넷, 제프 로크, 댄스 윌리 등으로 꾸렸다. 불펜진은 리즈를 포함해 마크 멜란콘, 토니 왓슨, 안토니오 바스타르도, 자레드 휴즈, 아키메데스 카미네로, 로브 스캐럴 등이다.

우완 강속구 투수 리즈가 가세하면서 피츠버그 불펜진의 평균 구속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역전의 여왕’ 역전패

### 김세영, LPGA ANA 공동 4위



‘역전의 여왕’ 김세영(22·미래에셋)이 역전패를 당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메이저대회 우승의 기회를 놓쳤다.

김세영은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 다이아 쇼어 토너먼트 코스(파72·6769야드)에서 열린 ANA 인스퍼레이션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기록을 보이며 버디 5개, 더블보기 2개, 보기 4개를 적어내 3타를 잃어버렸다.

합계 7언더파 281타를 친 김세영은 지난 2월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서 이어 메이저대회 우승까지 노렸지만 3타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공동 4위로 밀렸다. 2009년 이 대회 우승자 브리트니 린지컴(미국)이 김세영과 동반 플레이를 한 2011년 우승자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9언더파 279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우승컵을 차지하며 상금 37만5000달러(약 4억8000만원)를 받았다.

지난해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동하며 거둔 5승을 모두 역전승으로 장식했던 김세영이지만 단독 선두로 시작한 4라운드에서 샷이 흔들리며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미향(22·볼빅)이 5언더파 283타를 쳐 공동 8위, 김효주(20·롯데), 이미림(25·NH투자증권), 박인비(27·KB금융그룹), 제니 신(23·한화) 등이 4언더파 284타를 쳐 공동 1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비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5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인천시청 대 광주도시공사 경기. 광주도시공사 강주빈(왼쪽)이 상대 수비를 제치고 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어르신들

### 생활체육 축제

### 9~10일 무안스포츠파크

전남지역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축제가 열린다.

전남도생활체육회(회장 허정인)는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만60세 이상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 1800여명이 참가하는 ‘제10회 전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오는 9~10일 이틀간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등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무안군생활체육회·국민생활체육 전남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궁도, 정구, 등산, 배드민턴, 에어로빅스체조, 탁구 등 8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풍선 소망탑 쌓기’, ‘애드벌론 굴리기’, ‘추억의 고고댄스’, ‘O×퀴즈’ 등 레크리에이션도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만 92세의 허공(게이트볼·담당)을 비롯해 손귀남(87·에어로빅스체조·나주), 송창무(86·그라운드골프·순천), 광정희(86·무안), 황인현(82·궁도·광양), 김채린(82·정구·광양), 이창석(79·등산·완도), 오유경(78·탁구·진도), 남궁흥하(73·배드민턴·순천)씨 등 어르신들에게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도생활체육회 회장의 건강상이 주어진다.

허정인 전남도생활체육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마련했다. 특히, 22개 시·군 생활체육회에 114명의 어르신 전남 생활체육 지도자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해 건강하게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조영기 태권도협 상임고문

### 세한대 초빙교수 임용

조영기(77) 대한태권도협회 상임고문 겸 전남태권도협회 명예회장이 최근 세한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조 교수는 전남도체육회 부회장, 국기원 9단 창립회장, 고단자(9단) 심사평가위원, 태권도진흥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태권도계 원로다. 또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2013년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조 교수는 “태권도는 한민족 고유의 무술로 인성교육과 인격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한대 학생들에게 태권도의 5대 정신(예·인내·규기·열치·백절불굴)과 이념을 전수하는 등 태권도학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한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태권도 한마당 4연패를 석권한 태권도 명문대학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